제8강 불교사상사 I

(1교시)J_stJo01_030929_01

◎ 불교가 절대적 신의 존재를 가지지 않고도 넓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

첫째, 구원의 대상이 전 세계적이고 보편적 시스템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둘째, 상인들이 불교 전파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이동하며 장사를 했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불교를 전파할 수 있었다. 불교와 상인들은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상인들이 그들의 믿음에 의지할 수 있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종교적 도구(불상, 염주 등)를 얻은 대신 그 믿음을 널리 알린 것이다.

◎ 해탈하는 자는 누구나 신이 되는 것인가?

불교에서 수행을 통해 해탈을 하면 이르게 되는 것은 신이라기보다는 인간초월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붓다는 흔히 연꽃에 비유된다. 뿌리는 진흙탕에 있지만 진흙탕 속에서 물들지 않고 꽃은 수면에 떠 있기 때문이다. 붓다가 인간이 가지는 욕망과 세간의 유혹 속에 있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초월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과 통한다.

◎ 정정에서 정견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은 무수히 반복되는가?

정정(正定)에 이르고 나면 계속 깨달음을 위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지를 유지한다. 깨달음의 경험은 마치 '자전거를 한 번 배우면 평생 잊지 않는 것' 처럼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정(正定)에 이르고 난 후에 다시 시작되는 견(見)은 깨닫기 전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깨달은 후의 견(見)은 새로운 경지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교시)J_stJo01_030929_02

◎ 근본불교

붓다가 살아있는 동안의 불교.

◎ 초기불교(early Buddhism)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근본'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됨.

근본불교 + 초기불교

붓다가 죽은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변하지 않고 붓다의 뜻을 이어 받은 불교를 의미함.

◎ 부파불교

붓다 입멸 후 약 200년 만에 두 파로 나뉘어져 그 후 분열을 거듭하여 18~20여 개로 갈라진 시기의 불교의 총칭.

◎ 대중부(Mahasanghika)

마가다와 남인도의 아마라바티 부근에서 BC 250년 이후 만들어졌지만 불교가 인도에서 멸망할 때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진보.자유주의적이고 대승적(大乘的) 색채가 강하여 대승불교 성립의 원천이 된 것으로 전한다.

타인의 구제보다는 자기 수행의 완성을 우선목표로 삼는 부파불교에 반발하며 대승불교가 탄생. 이들은 개인보다는 전체의 완성을 우선한다는 입장에서 스스로를 대승(大乘)이라 칭하고, 이에 반해 기존의 부파불교를 소승(小乘)이라 낮추어 불렀다.

◎ 소승불교(Hinayana)

대승에 의해 붙여진 이름으로 '작은 수레'라는 의미이며 근본불교를 제외한 초기불교에서 부파불교까지를 일컫는다.

◎ 대승불교(Mahayana)

'큰 수레' 즉, 많은 사람을 구제하여 태우는 큰 수레라는 뜻으로 소승불교가 타인의 구원에 관

계하지 않는 것에 반(反)하고, 일체중생(一切衆生)의 제도(濟度)를 그 목표로 하였다. 대승불교는 처음부터 그 이름을 내걸고 생긴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새로운 불교 운동으로 각기 출현한 것들의 결합이다. 즉 개별적인 운동에서 전체적인 교리로 재구성된 것이다.

(3교시)J_stJo01_030929_03

◎ 불교의 전파와 중앙아시아

인도와 중국 사이에는 중앙아시아라는 넓은 지역이 자리 잡고 있다. **불교는 이 길을 지나오면서 많은 문화와 문명을 접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었다.** 불교는 크게 북전 불교와 남전 불교로 전파되었다. 인도 각지로의 불교교단이 확장(분열)해 간 배경에는 B.C 3세기 이후 '마우리아' 왕조에 의한 인도통일국가의 출현과 왕조의 3대째 왕인 아쇼카(阿育王 : B.C 286년 즉위)에 의한 보호가 큰 힘이 되었다. 불교는 마우리아 왕조에 의해 인도가 통일됨에 따라서 주변의 남과 북에 그 영향이 확대되어 갔다. 그 범위는 **북으로는 간다라, 아프카니스탄을 넘어 중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이르고 남으로는 스리랑카를 비롯해서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동남아시아의 전역에 이른다.**

◎ 밀교

'밀교'란 비밀불교란 뜻으로 주술적인 의례를 통해서 신비주의적인 교의를 설법하는 가르침이다. A.D. 500년 이후에 발전된 힌두교 tantra의 영향을 받아 탄생, 민간의 토착적 요소가 대승과 결합한 것이다. 주술적 수행으로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인도 접경 부분에서 일어났던 밀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을 극기에 의해 단련하는 면이 적고 현실 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환영받았지만 동시에 타락의 위험도 내포돼 있었던 것이다. 성전은 탄트라로 일반인의 요소들이 불교에 들어온 면이 많았다.

◎ 선불교

선불교가 불교다/아니다의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불교에 대한 중국적(동아시아 문화권적)반응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 대승불교의 특징

1. 法에 대한 개념 변화
2. 부처에 대한 개념 변화

3. 종교적 이상 변화 : religious ideal

종교에는 그 종교가 목표로 하는 것이 있다. 초기불교의 종교적 이상은 아라한이 되는 것이다. 물론 붓다도 아라한이나 아라한이 붓다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의 종교적인 이상은 내가 붓다의 전생으로 되어 붓다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살이라 부른다.

<참고자료-학생 프로토콜>

(1)

제8강 불교사상사 I

03학번 철학과 C학생

☞지난 프로토콜의 질문들에 대하여

1. Y 학우의 질문에 대한 답변

정정(正定)에 이르고 나면 계속 깨달음을 위한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지를 유지한다. 마치 '자전거를 한 번 배우면 평생 잊지 않는 것' 처럼 체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정정(正定)에 이르고 난 후에 다시 시작되는 견(見)은 깨닫기 전의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깨달은 후의 견(見)은 새로의 경지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L 학우의 질문에 대한 답변

① 불교가 절대적 신의 존재를 가지지 않고도 강하게 넓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
▶첫째, 구원의 대상이 전 세계적이고 보편적 시스템을 지니고 있기에 널리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둘째, 상인들이 불교전파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들은 이동하며 장사를 했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불교를 전파할 수 있었다. 나는 불교와 상인들이 일종의 공생관계라고 생각한다. 상인들이 그들의 믿음에 의지할 수 있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종교적 도구(불상, 염주 등..)를 얻은 대신 그 믿음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② 불교에서 수행을 통해 해탈을 하면 이르게 되는 것은 신이라기보다는 인간초월 의 경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Lokottara라고 하는데 Loka와 uttara의 합성어이 다. 붓다는

흔히 연꽃에 비유된다. 뿌리는 진흙탕에 있지만 진흙탕 속에서 물들지 않고 꽃은 수면에 떠 있기 때문이다. 붓다가 인간이 가지는 욕망과 세간의 유혹 속에 있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초월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과 통한다.

-불교 사상사-

-불교 사상사를 말하기에 앞서... "길은 돌아보면 있다."
역사는 가 아니라 이다. 이 말은 역사는 나아가는 흐름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reconstruct)된, 뒤를 돌아본 사실을 의미한다는 뜻이다. 또 사람들은 흔히 "사실이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나의** 사실이 있다."는 말이 더 옳을지도 모른다. 이런 말들로 불교 사상사를 시작하는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대승이니 소승이니 하는 용어들이 뒤를 돌아본 사람들의 자의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근본불교: 붓다가 살아있는 동안의 불교를 일컫는다. 이 학술어를 쓰는 학 자들간에 그 취지와 개념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붓 다의 교화(敎化)의 진면목에 접하고자 하는 신념에서 불교의 뿌 리가 되는 '석존직설(釋尊直說)'의 가르침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아함경(阿含經)》에 나타나 있는 교설을 곧 석가의 가르침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실제는 원시 불교(原始佛敎)와 대체로 같은 의미로 쓰였다.
⊙초기불교(early Buddhism): 붓다가 죽은 후 그 가르침을 이어받은 시기의 불교이 다. 또는 앞에서 언급한 근본불교부터 아쇼카왕 시대 정도까지의 불 교를 일컫기도 한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근본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부파불교: 붓다 입멸 후 약 200년 만에 두 파로 나뉘어져 그 후 분열을 거듭하여 18~20여 개로 갈라진 시기의 불교의 총칭이다. 여기서의 분열이라는 것 은 기독교의 교단분열과는 다른 것으로 가지가 뻗어 나가는 것과 유사하 다. 각 교단은 저마다 붓다의 교리와 계율을 연구.정리하여 방대한 논 서(論書)를 작성하면서 논쟁을 그치지 않았다. '논(論)'이라는 말의 원 어가 '아비다르마(abhidharma)'이고 이를 한역(漢譯)한 것이 아비달마 (阿毘達磨)이므로, 부파불교를 아비달마불교라고도 한다.
◈상좌부(Theravada): 장로가 포함된 원로(senior group)적인 성격을 가진다. 일종의 보수 층으로 과거의 계율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실론, 미얀마, 타이 등에 세력을 떨치고 있다.

◈대중부(Mahasanghika): 마가다와 남인도의 아마라바티 부근에서 BC250년 이 후 만들어졌지만 불교가 인도에서 멸망할 때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진 보.자유주의적이고 대승적(大乘的) 색채가 강하여 대승불교 성립의 원 천이 된 것으로 전한다.

부파불교는 논쟁을 통해 학문적으로 풍부한 불교였다. 그러나 당시 교단의 관심은 온통 붓다의 가르침에 충실하기 위한 교리의 해석이었으며, 자연히 출가자와 승원(僧院)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불교의 성격을 띠어갔다. 따라서 출가를 전제로 하여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수행하고, 또 타인의 구제보다는 자기 수행의 완성을 우선목표로 삼았다.
이로 인해 교단으로부터 멀어진 대중들은 교단에 반발하며 불탑(佛塔)을 중심으로 붓다에게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이로써 대승불교가 탄생하였다. 이들은 개인보다는 전체의 완성을 우선한다는 입장에서 스스로를 대승(大乘)이라 칭하고, 이에 반해 기존의 부파불교를 소승(小乘)이라 낮추어 불렀다.

⊙소승불교(Hinayana): 대승에 의해 붙여진 이름으로 근본불교를 제외한 초기불교 에서 부파불교까지를 일컫는다.
⊙대승불교(Mahayana): '큰 수레' 즉, 많은 사람을 구제하여 태우는 큰 수레라는 뜻으로 일체중생(一切衆生)의 제도(濟度)를 그 목표로 하였다. 소승불교 가 타인의 구원에 관계하지 않는 것에 반(反)하였다. 대승불교는 중심된 사상에서 뻗어 나온 것이 아니며 그 이름도 처음부터 붙여져 있었던 것 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근거로 A.D. 6~7세기 이전까지 인도의 비문에는 Mahayana라는 단어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을 들 수 있다. 그 전 불교의 타락과 부정에 반하는 무리들이 느슨하게 묶여져 있다가 뒤늦게 '대승' 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공통점을 묶어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 이 더 설득력 있다.
⊙밀교: A.D. 500년 이후에 발전된 힌두교 tantra의 영향을 받아 탄생하였다. 민간 의 토착적 요소가 대승과 결합한 것이다. 주술적 수행으로 원만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선불교: 불교에 대한 동아시아(문화권)적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①북전: 갠지스강 유역에서 실크로드를 거쳐 동아시아에 대승불교가 전파되는 것을 말한다. 인도의 불교가 중국을 통과하면서 토착적 요소와 결합하여 새로운 모습을 띄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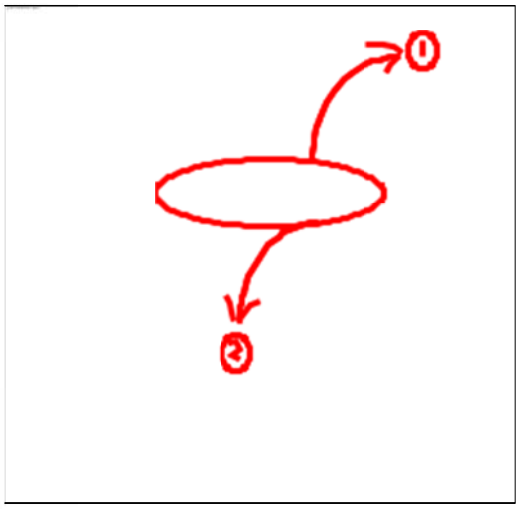
②남전: 북전이 지리적 요인으로 여러 문화와의 충돌, 융화 또는 동화의 과정을 거쳤던 것에 비해 남전은 거의 바로 전해 졌다. 그래서 전해져 오는 불교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문헌에 관세음보살이 언급되어진 것으로 보아 대승불교가 전해지긴 했지만 주류를 형성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승불교로의 변화

1. 法 개념변화

2. 부처의 개념변화

3. 종교적 이상 변화 ⇒ religious ideal



아라한 →보살

◈아라한 ①Ari(적)+han(죽임)=적을 죽인 사람 Arhat 여기서 적은 인간의 욕망, 정념을 가리킨다.

②Arhati(~할 만한)에서 어원을 찾는 경우 '숭배와 공양을 받을 만 한',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

붓다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른 인간의 유형을 일컫는다. 통상 붓다는 아라한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아라한이 붓다는 아니다. 비유를 하자 면 붓다는 스승이고 아라한은 제자다. 스승과 제자의 깨달음은 같으 나 스승은 처음 길을 열었기 때문에 아라한이 붓다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보살 보살은 아라한과 목표가 다르다. 붓다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며 장차 붓다가 될 사람이다. 소승에서도 보살은 존재했었다. 그러나 대승에서는 아라한은 자신의 니르바나를 성취하는 것에서 그치지만 보살은 다른 사 람이 니르바나에 들도록 돕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라한이 아니라 보살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질문--

저는 지난 수업내용 중 <체득>이라는 말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체득한다는 것은 체험하여 진리를 터득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언어나 독서만으로는 체득하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과거보다는 언어나 텍스트화된 정보가 중요시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체득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대사회에서 깨달음이나 진리를 체득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제8강 불교사상사 I

문과대학 철학과 03학번 L학생

※근본불교(초기불교라 부르기도 한다) -붓다가 살아있는 동안의 불교
근본불교와 초기불교를 하나로 초기불교라 부르기도 하며 이것은 붓다가 죽은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변하지 않고 붓다의 뜻을 이어 받은 불교를 의미한다.

※부파불교의 시대
붓다가 돌아가신 후 불교는 기원 전후가 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부처님이 열반(涅槃)한 후 거의 1백년간 교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면서 동일한 교단의 규제(律)에 따라서 통일된 조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단의 확장과 더불어 내부에 의견대립이 생기고, 율(律)의 해석을 둘러싸고 장로들을 중심으로 하는 보수파와 대중수행자들을 중심으로 진보파로 갈라졌다. 보수파를 '상좌부', 진보파를 '대중부'라 부른다.
보수.진보파가 갈라서게 된 계기는 금전을 저축하는 것 등 이른바 10사(열 가지 계율문제)를 '정법(淨法)'으로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고, 수행의 완성자로서 아라한의 성격에 관한 5사(五事)의 해석이 서로 틀린 때문이었다고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열이 서양 기독교의 분열처럼 극한 싸움으로 인해 갈라진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어디까지나 계율에 관한 해석문제로 자연스럽게 갈라진 것으로 보아야한다.
분열의 역사적 사실이 언제 일어났고 구체적 상황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근본분열 이후의 교단은 또한 지역과 교의(敎義)의 차이 때문에 세분화되고 드디어는 '부파' 불교시대로 들어간다.

'부파'의 수는 모두 20여 개였다고 하는데 상좌.대중부를 근본분열, 그 이후의 세분화를 지말분열이라 한다. '부파' 불교시대는 교단의 분열이 특징이란 점에서 그 이전의 시대는 부처님의 재세시를 포함해 '원시불교' 또는 '초기불교'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대승불교의 출현

'대승' [Mahayana] 은 큰 수레 라는 뜻으로 여럿이 같이 탈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불교라는 뜻이다. 대승불교는 그 당시 젊은 층의 승려들 사이의 불교운동으로써 부파불교까지의 불교를 '소승' [Hinayana], 작은수레라 불렀다. 이 것은 그전까지의 불교가 홀로만 닦는 불교 즉, 혼자만 타는 수레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승불교가 소승불교와는 다른 점을 강조하며 나타난 것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 그때 당시의 불교가 승단 중심으로 바뀌어 가며 지나치게 승려의 수행만을 강조하고 붓다가 재세시 강렬하게 비판했던 브라만 계급의 특권층화 현상, 다시 말해 브라만 계급이 사제 계급으로서 스스로의 권위에 취해 아만(我慢)에 빠져 있던 것과 같은 현상이 불교 교단 내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라는 역사적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대승불교는 교리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생

겨난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역사의 길을 걸어왔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역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에서 뒤를 돌아보며 재구성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대승불교는 처음부터 그 이름을 내걸고 생긴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다방면에서 새로운 불교 운동으로 출현하였다. 대승불교가 풍부하고 다양하게 전개된 것이 아니라 천천히 여러 운동들이 제각기 발전해오다가 점점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대승불교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합하게 되었다. 개별적인 운동에서 전체적인 교리로 재구성된 것이다.

인도와 중국 사이에는 중앙아시아라는 넓은 지역이 자리 잡고 있다. 불교는 이 길을 지나오면서 많은 문화와 문명을 접하게 되고 변화하게 되었다. 불교는 크게 남전불교와 북전 불교로 전파되었다. 인도 각지로의 불교교단이 확장(분열)해 간 배경에는 B.C 3세기 이후 '마우리아' 왕조에 의한 인도통일국가의 출현과 왕조의 3대째 왕인 아쇼카(阿育王 : B.C 286년 즉위)에 의한 보호가 큰 힘이 되었다. 불교는 마우리아 왕조에 의해 인도가 통일됨에 따라서 주변의 남과 북에 그 영향이 확대되어 갔다. 그 범위는 북으로는 간다라, 아프카니스탄을 넘어 중앙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이르고 남으로는 스리랑카를 비롯해서 인도네시아에 이르는 동남아시아의 전역에 이른다.

※밀교의 형성

'밀교'란 비밀불교란 뜻으로 주술적인 의례를 통해서 신비주의적인 교의를 설법하는 가르침이다. 인도 접경 부분에서 일어났던 밀교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을 극기에 의해 단련하는 면이 적고 현실긍정적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환영받았지만 동시에 타락의 위험도 내포돼 있었던 것이다. 성전은 탄트라로 일반인의 요소들이 불교에 들어온 면이 많았다.

대승불교의 교리

※종교적 이상의 변화

종교에는 그 종교가 목표로 하는 것이 있다. 초기불교의 종교적 이상은 아라한(붓다의 가르침을 체득한 인간의 상태)이 되는 것이다. 물론 붓다도 아라한이나 아라한이 붓다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붓다는 처음으로 깨달음의 길을 간 선구자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스승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의 종교적인 이상은 내가 붓다의 전생으로 되어 붓다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보살이라 부른다.

-질문-

‘길에서 붓다를 만나면 붓다를 죽여라’ 라는 경구가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보살의 의미에 따라 내가 부처이기 때문에 내 앞에 나타난 부처는 부처가 아니라는 말인지 아니면 부처를 신격화하며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서라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업과는 상관없는 질문이지만 붓다는 한 왕국의 왕자로써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쾌락의 극단과 고통스러운 고행의 극단 양쪽을 모두 겪어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중도의 깨달음을 쉽게 체득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7년간의 수행이 실패의 길이 었다고 해도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붓다가 깨달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붓다와 같은 경험이 없는 저같은 사람이 과연 붓다의 가르침대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